



국내·외 보건의료정보

희귀·난치병 국고 지원 확대

2004년 수혜자 20% 늘 듯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 받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2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을 70억원 가량 늘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희귀질환 지원 예산은 2백63억원에서 3백33억원이 된다. 치료비를 지원 받는 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세병 등 11개 질환 7천 6백86명에서 1천 5백16명이 늘어난다. 이 중 유전성 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페브리병은 내년부터 새로 지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에 한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전체의 20%)며 보험이 안 되는 비용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또 노인들의 장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07년 노인요양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 산하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건강보험과 다른 별도의 보험을 만들어 이 돈과 국가재정 지원분, 환자 부담금으로 요양제도의 비용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일보 2003.11.12)

응급진료비 정부가 대신 내준다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외국인 노동자, 행려병자 등이 응급진료를 받았지만 돈이 없어 진료비를 못 낼 경우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청구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代拂)제도'가 내달부터 크게 활성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미수금 대불제도 심사기준 고시'를 만들어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응급환자의 범위는 의식장애, 두부손상, 심장쇼크, 골절 등 법으로 정한 44개 항목이고 환자의 국적이나 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은 관계가 없다.

지금까지 대불제도 실적은 미미한 실정으로 지난해 대불제도 실적은 541건에 금액으로는 5억 6,800만원(평균 진료비 110만원)에 그쳤다.

대불제도의 재원인 응급의료기금의 연간 수입이 4억~6억원에 불과한 데다 복잡한 신청서류 등이 활성화를 가로막는 원인이었다.

복지부 진행근 보건자원과장은 "올해 응급의료기금 규모가 400억원대로 늘어남에 따라 119구급대나 경찰서, 보건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펴고 진료비 신청과 심사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3.11.11)

[WHO 보고서] "전세계 한해 1,000만명 담배로 인해 사망할 것"

현재 생존해 있는 세계 인구 62억 9,000만명 가운데 5억명 정도가 흡연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번역 출간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책보고서 '세계의 금연동향 및 정책효과'에 따르면 흡연이 전 세계 성인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매년 1,000만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보고서는 또 "세계 인구 중 5억명 정도가 담배로 인해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가운데 절반은 생산력이 높은 중년층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상 사망자 5억명 중 1억여명은 중국인 남성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중·저소득 국가(1인당 국민소득이 연간 7,000달러에 못 미치는 국가)에 살고 있는 15세의 남자 어린이 1,000명 가운데 125명이 흡연으로 중년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 고소득 국가에선 매일 1만 4,000~1만 5,000명이, 중·저소득 국가에선 8만 2,000~9만 9,000명이 새로 흡연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흡연율이 지속되면 담배로 인한 암 발생은 지금보다 20년 후에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아일보 2003.11.2)

“담뱃값 올리면 폐암 감소 효과”

日폐암학회 나가시로 사이조 부회장

“담뱃값을 두 배 올리면 흡연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모의실험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담배세금 수입도 별 변화가 없고요, 이론적인 모형이어서 현실에 꼭 들어맞을 지는 미지수이지만, 담뱃값의 인상이 흡연 인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6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임상종양학회(ACOS)에서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일본폐암학회 부회장 나가시로 사이조박사는 “일본도 금연정책이 엄격하지 않아 흡연율이 더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조 박사는 “과거에는 폐암은 조기발견의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일단 발병하면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암으로 꼽혔다”며 “그러나 요즘은 치료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 조기발견의 의미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폐암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기에 발견하면 70~80%는 치료 후 생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폐암환자들에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 폐암 치료제 ‘이레사’의 경우 아직 모든 폐암환자들이 이 약으로 병을 완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는 확실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 사이조 박사는 “특이한 점은 이레사에 대한 폐암환자의 긍정적 반응률이 미국인은 10%대인 반면, 일본인은 30%나 되고, 한국 연구에서도 30%로 나타나 동양인들에게 더 잘 맞는다는 것”이라며 “유전자의 결함이 암의 한 원인이 되는데, 한국과 일본 사람은 비슷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사이조 박사는 “이레사가 폐암환자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긴 하지만 완치하는 약은 아니다”며, “폐암을 포함해 다른 암의 경우도 완치할 수 있는 약물이 금방 개발될 가능성은 낮으므로 예방, 즉 금연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3.11.18)

운동 꾸준히 하면 뇌기능 높아진다

영장류 실험을 통해 운동이 뇌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세계 처음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신경과학회에서 발표됐다.

유 교수팀은 사람으로 치면 중년에 해당하는 15~17세 원숭이(평균 수명은 27~30년) 24마리를 세 무리로 나누었다. 한 무리는 20주 동안 운동을 시킨 뒤 곧바로 뇌를 절개했고, 다른 무리는 20주 동안 운동시키고 12주를 우리에서 쉬게 했으며, 세 번째 무리는 우리에서 쉬게만 했다.

이후 이들 원숭이의 뇌를 꺼내 약물로 염색한 다음 현미경으로 팔다리의 운동을 총괄하는 ‘중심앞이랑’의 혈관 부위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꾸준히 운동한 그룹은 운동을 안 한 그룹에 비해 싹틔줄의 수가 15% 많았다. 운동을 한 뒤 쉬 무리는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연구진은 또 두 장난감 밑에 작은 선물을 숨기고 원숭이들에게 찾도록 시켰다.

오리건 보건대의 주디 캐머런 박사는 “운동을 한 무리가 선물을 더 빨리 찾지는 못했지만 찾았을 때 더 기뻐하고 민첩하게 움직였으며 선물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중년 이후 지속적으로 운동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뇌가 생리적으로 변화해 운동능력이 향상된다”면서 “운동이 인지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3.11.16) 